인문연구 제95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5, No. 1, pp.133~168
http://dx.doi.org/10.21211/JHUM.95.5

식민지기 대구신사의 건립과 활용

- 이주를 통한 종교문화의 이식을 중심으로 -*

지영임**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3. 대구신사의 성립과정
  1) 거류민봉제신사로서의 창건: 1905년부터 1914년까지
  2) 국가신도체제의 이식: 1915년-1936년
  3) 신사참배 강요의 규범화: 1937년 이후의 대구신사
4. 1930년대 이후 대구신사의 제의 및 역할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대구신사는 거류민단에 의해 1905년 달성산에 황조요배소로 창건되었으며, 1913년에 대구신사로 개칭하여 1937년에 국폐소사로 승격된 신사이다. 거류민봉제신사의 창립목적에 대해서는 '식민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과물이다 (과제번호: 2018S1A5B5A07072660).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지 지배의 도구'라는 입장과 '서민종교성'의 유지를 위한 필요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구신사의 사례가 어떠한 논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째, 신사조성이 시작되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의 거류민봉제신사기, 둘째, 대구신사가 완성되는 1915년부터 1936년까지를 국가신도체제의 이식기, 셋째, 신사참배 강요가 규범화되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로 시기구분을 하여 대구신사의 성립과 활용을 살펴보면, 대구신사는 창건 당시부터 거류민의 서민종교성보다는 식민권력과 일본군대의 영향이 뒷받침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식민지기 다양한 종교문화의 복원을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신사 사례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구신사, 거류민봉제신사, 국폐소사, 거류민단, 달성공원

1. 들어가는 말

식민지 조선의 신사[1]는 1945년 일본의 패전 직전까지 신사 총 82사[2], 신사(神祠)[3] 총 914사로서 일제의 여러 식민지 가운데 관

1) 일제 식민지하 각지에 세워진 신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해외신사, 식민지신사, 침략신사 등이 있다. 해외신사는 일본의 식민지에 세워진 신사 외에 외국에 일본인 이민 등 숭경자(崇敬者)가 세운 신사의 총칭으로(菅, 2010: 132). 주로 일본의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침략신사는 즈시가 사용한 명칭으로 일본이 식민지화 또는 점령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창건하여 황국신민교육, 팔굉일우 사상의 선전, 강요의 장으로 이용된 것에서 침략신사라고 하였다(辻子, 2007: 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오이(青井)가 사용한, 식민지에 세워진 신사라는 의미 그대로 '식민지 신사'를 사용하기로 한다(青井, 2005).

2) 관폐대사가 2개(조선신궁, 부여신궁), 국폐소사가 8개(상기설명 참조), 호

국폐사를 비롯하여 신사의 수가 가장 많았다(菅, 2004: 3). 일본 정부가 조선에 건립한 신사를 정비 및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1915년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과 1936년 조선총독부의 신사규칙의 개정 「일도일열격사(一道一列格社)」의 설치 방침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정책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신사의 창건허가를 관할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거류민봉제신사들의 관, 공립화를 추진하여 신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4] 그리고 후자의 정책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제사지원을 받는 국폐소사(国幣小社)를 지정하고, 동년 8월 도부읍면(道府邑面)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을 받는 도공진사(道供進社), 부공진사(府供進社)를 지정하였다.[5] 그 결과 1936년 경성신사와 부산의 용두산신사를 필두로 1937년 대구신사와 평양신사, 1941년 광주신사와 강원신사, 1944년 함흥신사와 전주신사가 국폐소사로 승격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국폐소사 8사는 창건경위 미상의 함흥신사를 제외한 7사가 거류민봉제신사[6]였으며, 용두산신사를 제외하고 모두 주

국신사가 2개(경성호국신사, 나남호국신사), 府縣社 7개, 鄕社 7개, 村社 14개, 無格社 42개 등이다.

3) 조선에서만 유일하게 신사(神祠)라는 용어를 만들어 신사(神社)로 공인받지 못한 소규모 소사(小社)를 신사(神祠)라는 이름으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神祠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21호, 1917년).

4) 이 규칙에서는 신사(神社)와 사원(寺院)을 같이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사에 대하여는 공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보호, 장려의 규칙이며, 사원에 대해서는 규제, 탄압의 규칙이었다(김승태, 2009: 123).

5) 일본 내지와 대만에서는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관폐사, 국폐사, 부현사 이하와 같이 전국의 신사를 서열화하는 사격제사가 정비되었으나, 조선에서는 부현제(府県制)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지의 부사(府社)가 도공진사(道供進社), 현사(県社)가 부공진사(府供進社)에 해당된다(문혜진, 2015: 45).

6) 거류민봉제신사는 일반적으로 한일병합이후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으로 신사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1915년 일본 본토의 관국폐사 이하 제사령을 식민지 조선에 도입하기 전까지 창건된 신사를 일컫는다(青井, 2005: 51). 거류민봉제신사는 1678년 부산부의 왜관에 창건한 고토히라신사(金刀比羅

신으로 아마테라스[7]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었다(문혜진, 2016: 169).

대구신사의 경우, 대구 거류민단이 주축이 되어 대구시 달성산(현 달성공원)에 황조요배소(皇祖遙拜所)[8]를 창건하였으며, 이후 1913년에 대구신사로 개칭하여 1937년에 국폐소사로 승격된 신사이다. 거류민봉제신사는 이전부터 창립목적에 대한'침략성이 논의되었다. 무라카미(村上重良)는 식민지 신사 대부분이 국가신도의 침략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종교시설이었다고 지적하며, 그 본질은 일본이 지배하는 토지에는 일본의 신들이 강림한다는 국체의 교의에 선 종교침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村上, 1970: 192-5). 무라카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혜진은 남산신궁의 사례로부터 거류민봉제신사의 건립 목적을 '모국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관습적 종교의 이식 및 사회적 영적인 위안의 필요성'(문혜진, 2013: 247)으로 보고 있으며, 거류민신사의 일반적 견해인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보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오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 지배의 도구' VS '서민종교성'이라는 이분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

神社)가 최초이며, 이후 1882년 함경남도 원산부에 원산대신궁, 1890년 인천부에 인천대신궁, 1898년 경성부에 남산대신궁 등의 거류민 봉제신사가 거류민유지들에 의해 창건되기 시작하여 1915년까지 총 31개의 거류민봉제신사, 신사(神祠)가 창건되었다(青井, 2005: 51)

7) 아마테라스는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농민들에게 오곡풍요의 신, 농경신으로 폭넓은 신앙을 받아왔으나 도시가 발달하면서 농경신으로서의 측면과 더불어 복신적(福神的) 성격이 더해져 현세이익적인 신격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명치정부의 국가권력에 의해 천황제 국가의 형성 및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 '일본 황실의 조상신'의 이미지로 통합되어 '황조신'과 동일시되었다(박규태, 2002a: 44-45, 문혜진, 2016: 172-173 재인용).

8) 요배소는 각지의 신사에 설치되었고 비록 신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설 신사의 구실을 하였다. 일본거류민들 사이에 실시된 요배가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죽자 총독부는 1912년 8월 23일 요배의식 통첩을 각 도 및 부윤, 군수에게 보내고, 각지에 요배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요배를 강요하였다(김승태, 2009: 156).

며, 대구신사의 사례를 통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신사의 성립과정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식민지시기의 종교문화를 복원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재현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일본에서 한국 내 식민지신사의 대표적인 연구는 193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小笠原省三(1933)『海外の神社』, 小山文雄(1934)『神社と朝鮮』, 岩下傳四郎(1941)『大陸神社大観』, 近藤喜博(1943)『海外神社の史的研究』, 小笠原省三(1953)『海外神社史』, 森田芳夫(1967)『朝鮮終戦の記録』 등으로 신도계, 총독부, 내무성과 관계가 있으며 해외신사를 적극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는 실천적 입장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津田、中島 외, 2006: 287).[9]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황민화정책과의 연관에서 비판적인 입장의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연구의 영향으로 무라카미(村上重良) 등 국가신도의 개론서에도 식민지신사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졌다. 이후, 한국의 식민지신사에 대한 개별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津田, 中島 외, 2006: 288).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연구로는 菅浩二(2004)『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 青井哲人(2005)『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樋浦郷子(2013)『神社, 学校, 植民地−逆機能する朝鮮支配−』, 青野正明(2015)『帝国神道の形成ー植民地朝鮮と国家神道の論理ー』 등

9) 이 연구들은 총독부 촉탁으로 조선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식민지신사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있다. 오랜 기간 식민지에 세워진 신사에 천착하여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저서는 일제 식민지기 식민지 지배자가 황민화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의 국가신도체제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신사비종교론[10]에 근거한 국가신도가 어떻게 천황제이데올로기와 결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青野, 2015: 7).

한편,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신사에 대한 연구는 오랜 세월 금기사항이었으나(손정목, 1987: 106) 1970년대부터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한 기독교도에 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기독교 연구자 김승태(1987), 도시사 연구자 손정목(1987)을 중심으로 황민화정책에 맞선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 말살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식민지신사의 연구가 없는 가운데 기존의 자료들을 재해석하고 신사참배강요와 저항의 실상을 밝힌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 연구로 인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전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국내에서 식민지 신사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이다. 주로 서울지역의 조선신궁, 경성신사, 경성호국신사 등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인천대신궁, 부여신궁, 용두산신사, 전주신사, 구룡포신사[11] 등이 개별적 사례로 분석되어 왔

---

10) 명치정부가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외관을 정비하기 위해 제국헌법 제 28조에 신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신교의 자유는 신권적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국헌법의 정신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에 명치정부는 불교, 기독교, 교파신도(教派神道)는 종교의 범주로 재편하고 신사신도(神社神道)는 제사이며 종교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신사로부터 종교적 요소를 제거시킨 이른바 '신도비종교론'을 내세우게 된다(박규태, 2002b: 230-232).

11) 식민지 신사에 대한 개별적 연구로는 김철수, 「'조선신궁'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검토」,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순천향 인문과학논총』27, 2010, pp.155-191, 김대호,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

다. 개별신사의 연구는 도시경관의 변화, 신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주로 1876년 한일수호조약 체결에 의해 개항된 경성, 인천, 부산 등 개항장 위주의 도시가 중심이 되어 내륙지역의 식민지신사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에서 지역신사가 지니는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사례 또는 사료분석의 결과가 하나의 식민지조선으로 통합되어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으로 논해지고 있는 점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지역신사가 지니는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신사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구신사에서 행해진 제의 및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로는 식민지기 발간된 자료와 신문, 일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식민지기 대구에 거주한 일본인으로 대구신사 건립에 관여한 미와(三輪如鐵)의 『大邱一般(조선 대구일반)』(1911)[12], 가와이(河合朝雄)의 『大邱物語(대구이

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2008, pp.73-186, 안종철,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서울시립대하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2011, pp.49-74, 박진한, 「식민지시기 '인천대신궁'의 공간변용과 재인천 일본인: 유락과 기념의 장소에서 식민지배의 동원장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62, 2013, pp.391-433, 손정목, 「일제하 부여신궁 조영과 소위 부여신도건설」, 일지사, 『한국학보』13-4, 1987, pp.123-156, 김승, 「개항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지역과역사』20, 2007, pp.5-45, 최진성, 「일제 강점기 조선신사의 장소와 권력-전주신사를 사례로」,『한국지역지리학회지』12, 2006, pp.44-58, 홍금수, 「구룡포 신사터의 탈식민 혼성경관 텍스트에 내재된 다중의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문화역사지리』25-3, 2013, pp.34-63. 등이 있다.

12) 『조선 대구일반』과 『대구이야기』는 식민지하 대구 관련 연구논문에서 기본문헌으로 꼽히는 자료이다. 『조선 대구일반』는 근대 이후 대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일본어 자료이며, 저자 미와는 야마구치 현 출신으로 1891년 양잠교사로 대구에 초빙되어 1920년 대구에서 생을 마감하

야기)』(1930)[13], 『大邱民團史(대구민단사)』(1915년)[14], 『大邱讀本(대구독본)』(1936), 대구부 『大邱府史(대구부사)』(1943)와 식민지기에 쓰여진 일기 또한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3. 대구신사의 성립과정

지역 신사의 특징과 의미, 신사의 성립과정과 활용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기구분은 학자마다 다르며, 山口(2006)는 무단정치기(1910년대), 문화정치기(1920년대), 만주사변기(1930년대 전반), 전시체제기(1930년대 후반 이후)로 나누고 있다.[15] 스가(官, 2010)는 1930년대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전시체제기와 그 이전으로 구분한 후, 1930년대 중기의 '황민화정책'을 양자의 이행기로 보고 있다. 스가의 이러한 구분은 식민지시기 신사정책의 '강제성'이나 '침략성'은 신사창건당시부터가 아닌 1930년 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스가는 '신사참배강요'라는 말을 적합하지 않으며 모더니즘 일반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였다(최범순, 2016).

13) 『대구이야기』는 1904년 대구에 온 후 27년 동안 거주하면서 1931년 『대구민보사』 사장을 역임한 가와이가 조선민보사에서 발행한 것이다. 대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달성산의 공원화, 대구신사 조성과정, 박중양에 의한 읍성파괴 등에 대해서 적고 있다.

14) 『大邱一般』과 『大邱民團史』은 2016년과 2020년 최범순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大邱物語』도 번역본이 있다. 본고에서 인용시에는 주로 번역본을 사용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원본과 대조하였다.

15) 야마구치는 신사정책 시기구분에 따라 제1기 신사법규의 성립 및 조선신사 창립의 움직임(1918)부터 조선신궁 진좌제 전(1925)까지, 제2기 조선신궁 진좌제 이후부터 신사제도 제정(1936)까지, 제3기 신사제도 개정부터 해방(1945)까지로 구분하기도 한다(山口, 1998: 129).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첫째, 대구에서 신사조성이 시작되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의 거류민봉제신사기, 둘째, 대구신사가 완성되는 1915년부터 1936년까지를 국가신도체제의 이식기, 셋째, 신사참배 강요가 규범화되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거류민봉제신사로서의 창건: 1905년부터 1914년까지

1905년부터 1914년까지 대구신사의 건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항장과 달리 내륙지역의 신사 창건은 더디게 진행되었다(이동훈, 2018: 410-411). 개항장에 세워진 신사는 부산의 용두산신사(1899)를 비롯하여 원산신사(1882), 인천신사(1890), 군산신사(1902) 등이며, 진남포(1903)와 용천(용암포)신사는 각각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1905)을 치루면서 일본군이 병참기지로 점령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최진성, 2006: 48-49).

대구도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일본군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구에 일본인이 처음으로 이주한 것은 1893년으로 오카야마현 출신의 일본상인이 2명이었다. 대구는 일본군 중대가 주둔하여 다수의 군대가 통과하였기 때문에 군부대 관련 일본인 상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처음 이주한 2명도 군대에 고용되어 통역과 의무를 맡았다(대구부, 2020: 21-22).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된 후 대구에 주둔해있던 조선주차군은 귀환하게 되어 대구에는 전신수비(電信守備)라는 이름으로 헌병대만 남게 되었다(대구부, 1943: 188). 그 결과 대구의 일본인 상점은 폐쇄되고 4개의 점포만 남게 되었으나, 1903년부터 대구에서 경부철도부설 공사가 진행되어 철도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본인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대구부는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1개 소대 주둔군이 설치되

었고, 그 후 의병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12여단 사령부, 제14연대 본부가 설치되었으며, 1916년에는 보병 80연대가 설치된 군사도시였다(대구부세일반, 1936: 119-121, 오타, 2013: 211 재인용). 대구의 경우,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달성에 신사가 건립되는 배경에는 식민권력과 일본군대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16]



〈그림 1〉 황조요배전

(大邱名所)達城公園ニ於ケル 皇祖遥拝殿(大邱日村売品館発行)
http://www.himoji.jp/database/db04/permalink.php?id=87, 神奈川大学非文字資料研究センター,(검색일 2021년 3월 4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을사조약 체결(1905년), 통감부의 설치(1906년)와 함께 일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모국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류민신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신을 공경하는 관념을 막을 길 없어 사당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경배하고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예를 드리려는 논의'가 있었으며, '예로부터 토속적 신앙인 성황당이 있어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진좌지로 달성이 선정되었다

16)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만들어진 군사도시 대구는 현재 만촌동 군사시설, 미헨리부대, 대구 국제비행장 등으로 지금까지 연속되어 K2 주한 제5미공군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다(김경남, 2017: 55).

(岩下, 1941: 385-386). 거류민들은 황조대신 요배전을 건축하려는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관찰사 이용익은 1905년 4월경 대구의 달성 서씨에게 달성산 내의 개간을 지시하였다. 이유는 뽕나무 밭으로 만들어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미와, 2016: 100).

대구에서 일본인 사회가 형성, 확정되는 과정에서 관찰사 이용익의 배일(排日) 정책에 불만이 고조된 일본인들은 1905년(명치 38) 4월 26일자 『대구실업신보(大邱実業新報)』[17]에 일본인 임시대회 개최를 광고하고, 도쿠라 등 26명의 명의로 관찰사를 배격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 일본의 실상을 시찰하고 돌아온 이용익은 귀국한 후에도 여전히 간책을 농하고 있다. 일한 국교를 방해하다 서울에서 쫓겨나 대구에 까지 밀려나 부임한 자가 겉으로는 우리 일본인과 친하려는 척 위선적으로 도로위생교육 등 문화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배일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핑계 저 핑계로 거절하고 지금은 토지 가옥의 정상적 거래조차 방해, 금지하고 있다. 양 국민 공동의 이익을 저해하는 실태가 현저하다.
>
> 모든 일본인은 이 관찰사의 배척에 호응하라. 1차로 동문 밖 달서관에서 임시 일본인 대회를 개최하니 우리의 목적을 수행하는 제일 서막에 동참하라.

이용익은 1906년 10월 일본인들에 대한 토지매입과 법적 권리가 보장된 '토지증명가옥규칙'이 발포되기 이전에 일본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조한 조선인을 구금하였다(김일수, 2015: 268).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4월 28일 '임시 일

17) 『대구실업신보』는 1905년 3월 구마모토 출신의 下津三朗, 마키노(牧野周) 등이 창간한 신문으로 흑룡회 멤버인 우에다(上田黒潮), 나중에 부산일보의 사장이 되는 노다(野田正) 등이 주필을 맡았다. 재정난으로 1906년 1월 『대구신보』로, 12월 『대구일일신문』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金泰賢, 2011: 35).

본인 대회'를 연 뒤, 도쿠라(戶倉十六)는 일본군 병참중대장 히다카(日高才二) 대위, 히자츠키(膝付益吉), 대구군수이며 친일파로 알려진 박중양 등과 함께 이용익과 담판을 벌였다. 이용익은 다음날 29일에 구금한 조선인을 모두 석방시키고 대구를 떠났다(김일수, 2015; 268). 또한 일본인들은 달성산을 한일 공동의 공원부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개간을 중지시켰다(미와, 2016: 100). 이와 같이 일본 군대와 거류민, 친일 관료 등이 관찰사를 배격하고 압박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요배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05년 11월 3일 달성산이 요배전 부지라는 사실을 확정 발표하고 당시 수비대장 야마다(山田) 중위, 아리마(有馬) 경부, 다도코로(田所) 일본거류민회장의 입회아래 '황조 요배전 건설부지'라는 표목을 세우고 요배식을 행하였다.[18] 1906년 5월, 박중양이 관여해 공식적으로 부지허가를 받았으며(미와, 2016: 100-101), 1907년 달성공원설계에 착수하였다. 일본인들은 달성공원을 한일공동의 공원으로 만들고자 달성공원기성회를 조직하였으며, 설비비거출방법으로 복권을 판매하기도 하였다(대구부, 2020: 169).[19]

달성공원기성회 취의서를 살펴보면, 달성공원기성회를 조직한 목적은 '달성공원을 완비하여 주민의 공락지(共樂地)를 조성하고, 이곳에 내유(來遊)하는 사람들을 증가'(대구부, 2020: 168-169) 시키려는 데에 있었다. 1907년경까지 달성공원 중앙은 갈대가 난 습지로 발 디딜 곳이 없었으나(가와이, 1998: 29) 1908년 11월부터 한일유지들의 기부로 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미와, 2016:

18) 요배전의 초대 신관은 쓰시마 출신의 이와사키(岩崎田實也)였으며, 신사의 건립에 앞장섰던 인물은 미와(三輪如鐵), 이와세(岩瀨靜), 야스마츠(安松熊吉) 등이다(가와이, 1998: 29).

19) 달성공원기성회 임원은 회장 岩瀨靜, 부회장 徐丙吾, 간사 中江五郎平, 小倉武之助, 土屋彦太郎, 西本民城, 李錫珍, 사무장 井上宗之助, 서기 小宮彦次 등으로 한일 공동유지가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대구부, 2020: 169).

101). 달성공원 요배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1909년 1월 초대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달성공원을 방문하고 달성공원기성회에 500원을 하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였다(『황성신문』, 1909년 3월 10일). 이후 관광, 시찰의 단체여행자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달성공원을 찾게 되고, 민단에서는 각종 행사, 운동회 등을 공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거의 찾는 사람이 없던 달성공원은 대중에게 폭넓게 각인되기 시작하였다(대구부, 2020: 70).

공원과 신사가 결합하는 사례는 대구의 달성공원 이외에도 용두산공원(부산), 중정공원(원산), 남산공원(왜성대공원, 한성), 마산공원(마산), 송도공원(목포) 등이 있다. 특히 신사사원규칙 시행 전의 남산대신궁은 1897년 3월 경성일본영사와 조선정부와의 사이에 영대(永代) 차지(借地) 계약체결 후 왜성대공원이 설치되었으며, 거류민단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의 공원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青井, 2005: 159). 또한 아오이는 대구의 사례에서도 한일공동의 공원지로 하는 명목으로 한국정부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원지가 조선-대한제국정부로부터의 토지취득에 유효한 교섭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1910년 한일병합 이전의 신사건립은 공원지 토지수탈과 함께 영토적 이권 확장이라는 일본제국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것이다(青井, 2005: 165).

공원지 획득과 신사건립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류민단은 공공사업의 실질적 추진주체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권을 확장해간다(최범순, 2020: 282). 예를 들면, 대구읍성의 훼철은 기존 도시의 틀에 변화가 생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거류민단의 경제적 이권과도 연관되었다.[20] 1906년

20) 수원의 경우, 화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시형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대구를 비롯한 경성, 평양, 전주, 진주 등은 도시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꾸었다(김백영, 2012: 22).

박중양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류민단의 성곽 훼철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대구읍성은 1907년 4월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대구문화예술회관, 2008: 21). 일본거류민단이 성곽 훼철을 주장한 이유는 대구읍성 안은 국유지였기 때문에 소유가 힘들었고 읍성이 있어 상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114). 경부선철도 건설, 달성공원지 획득, 대구읍성의 훼철 등은 일본인 사회와 일본 군대, 친일관료 등의 식민지 권력을 배경으로 대구를 일본인 중심의 도시로 개편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김일수, 2015: 268).

1909년 보병 제14연대는 본국 귀환이 결정되어, 5월 28일 달성공원에 제단을 진설하고 충혼제(忠魂祭)를 지냈다. 보병 제14연대는 일본 규슈지방의 고쿠라(小倉)에 본부를 둔 보병 제12사단 소속으로 1907년 한반도 주둔 이후 1909년 6월 본국 귀환까지 영남과 호남지역의'의병토벌'에 참가한 일본 군대이다. 연대본부는 본래 대구에 두기로 하였으나 1907년 9월 6일까지는 임시로 대전에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이후 제14연대가 본국에 귀환할 때까지 연대본부는 대구에 있었다(홍순권, 2011: 28).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후에 구한국군의 강제 해산을 목적으로 1907년 7월 보병 제14연대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1개 사단 주둔을 고수하던 일제가 13사단 이외에 1개 여단을 증파한 것은 고종의 강제퇴위 후의 사태를 미리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다(김상기, 2013: 8). 보병 제14연대의 연대장 기쿠치(菊地主殿) 대좌는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토벌대의 총지휘를 하는 한편, 경북 산간지역의 의병탄압에 집중하였으며, 제47연대와 합동으로 토벌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보병14연대진중일지』[21] 1908년 5월 24일자에 의하면, 1907년

21) 1907년 이후 주로 영, 호남 지역 의병 탄압에 참여한 보병제14연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로 총 14권으로 되어있으며 1907년 7월 23일 동원령을 받은 날부터 1909년 6월 19일 부대 복귀까지 근 2년간의 기록이다(김상

7월부터 1908년 5월 19일까지 의병 희생자는 총 13,445명에 달했다. 이에 비하여 일본 측은 수비대 56명, 경찰 55명, 헌병 4명으로 총 115명이 사살되었다(김상기, 2013: 37). 즉, 1907년 5월 시점에서 일본 측에 비해 의병희생자가 100배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5월 충혼제에는 한국 주차군 사령관 오쿠보(大久保) 대장, 대리 아다치(安達) 중좌를 비롯하여 부산 이사관 가메야마(龜山理平太) 및 부산관민 10여명, 대구관민, 애국부인회,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식(神式)으로 제전을 거행하였다. 전사, 병몰자는 46명으로 기구치 제14연대장의 제문은 다음과 같다(가와이, 1998: 259).

제문(祭文)

유세차 1909년 5월 28일, 보병대좌 종4위 훈3등 공5급 기쿠지는 한국 대구 달성공원에 정하게 단을 만들어 한국 폭도진압에 종사했던 우리 연대 고 육군 보병 조장(曹長) 가와미츠(川滿布建) 이하 45명의 전사, 병몰자의 충혼을 모신다. 돌이켜보건데 1907년 여름 7월, 조칙으로 우리 연대가 한국으로 건너온 이래 혹서 냉한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폭도 진압에 나선지 2년, 대소전투가 수백 번, 수색작전은 너무 빈번하여 헤아릴 수 없었다. …(중략)… 지금 한국 천지는 여러분의 분투하신 공에 의해 전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정되었으니 여러분의 넋이여 부디 편안히 잠들라! 우리 보병 제14연대는 이제 임무를 마치고 임시 한국 파견대와 교대하여 내지로 귀환코자하는 터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영혼에게 하직을 고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한 조각 사사로운 정으로 흘러내리는 암루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의 충혼의백은 오래도록 한일 양국 즉 동양 평화의 수호신이 되고 또한 칙령에 의해 길이 한국의 사반(祠畔)에 모셔 그 공훈과 위업을 동양사상에 이름과 함께 남길 것이니 죽어서도 하신 일이 될 것인즉 또한 영광이라 하지 않겠는가(밑줄은 필자의 강조).

기, 2013: 6).

의병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그 죽음은 제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한국 폭도 진압의 희생자인 일본인 전사, 병몰자 46명만이 충혼제의 대상이 되었다. 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한국폭도진압'이라는 명목 하에 희생된 일본군 전사자에 대해서'한일 양국 즉 동양 평화의 수호신'으로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행정, 군사,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이러한 전통도시를 해체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구 주둔 일본군의 역할이 크다(김일수, 2015). 러일전쟁을 시작으로 대구는 군사도시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제14연대의 귀환에 맞춘 충혼제는 '조선에서 죽은' 일본군 희생자를 위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제사가 되었다.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전사자가 일본에서 '호국의 신'으로 현창되는 것과는 달리 달성공원 제단에 모셔진 일본인 전사자는 '동양 평화의 수호신'으로 영혼은 한국에 남게 되었다.[22)]

2) 국가신도체제의 이식: 1915년-1936년

1915년에서 1936년까지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1915년 신사사원규칙 포고 및 1936년 신사규칙 개정 등의 영향으로 대구신사는 비교적 완전한 신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5년 신사사원규칙 포고 이후, 대구신사의 신전, 배전, 사무소 및 부속건물 및 비품 등은 대구부로

22) 일본 군경(軍警) 전사자 중에서 의병 등에 의해 죽은 사람의 수는 야스쿠니신사가 발행한『야스쿠니신사 충혼사』(1933년)에 의하면 280명으로, 이들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靖国神社社務所『靖国神社忠魂史第四巻(下)』p.931, 남상구, 2019: 54).

부터 무상으로 받았으며, 1914년 6월 20일부터 20여 년간 대구부가 대여하고 있는 국유지 달성공원 4만 6485평 중 1536평을 대구신사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를 받았다(大邱府, 1943: 117).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2호 '신사사원규칙'의 제정발포는 신사의 남발을 방지하여 '국가의 종사'인 신사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우지코조직을 두어 이를 운영하려는 것이었다(김대호, 2008: 94)[23]. 조선총독부가 우지코조직을 중심으로 한 신사정책을 운영하고자 한 것은 일본 내의 신사정책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새로운 신사제도를 이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특히 한국의 신사사원규칙은 신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인적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김대호, 2008: 95-99).

대구대신궁 요배전은 1913년 대구신사로 개칭하였고, 공원이 체제를 갖추어 수만 명의 군중을 수용하기에 이르자 요배전 위치를 별도로 높은 곳을 선정하여 장엄함을 지니도록 요배전 신축계획을 세워 1914년 3월 준공되었다(대구부, 2020: 170-171). 대신궁요배전 건립 후 민단신사로서 우지코총대(氏子総代)[24]를 선출하였는데 기도(城戸唯次郎), 오카다(岡田喜八), 가미야(神谷豊功), 사이토(斎藤芳造), 스다(須田三平), 가와이(河井朝雄), 스기하라(杉原新吉), 사카이(堺萬次郎)가 뽑혔다(대구부, 2020: 170). 대구신사는 4월 부제(府制) 시행과 동시에 그 관리가 부(府)로 인계되었다. 1915년

23) 우지코총대(氏子総代)는 우지코의 대표이며 우지코란 신사의 등록된 신자를 의미한다. 우지코는 신사의 창립, 유지관리, 개축, 확장, 신직의 부양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봉사자들이다(손정목, 1987: 126-127). 원래 일본은 신사가 각 취락의 수호신이었고 그 취락의 대다수가 성이 같은 동족취락이었기 때문에 신사는 곧 우지가미였고, 취락민은 우지코로 불렸다.

24) 우지코는 지역의 수호신을 숭경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지코조직은 지역 신사의 제사를 준비하고 치르기 위한 조직이며 우지코총대는 우지코조직의 대표자다(김대호, 2008: 125)

공포된 신사, 사원 규칙에 기준하여 1916년 1월 28일부 시부사와(渋沢周蔵) 외 41명 내선인(内鮮人) 의 연서로 대구신사창립원을 제출하여 1916년 4월 22일부로 창립허가를 받았다(대구부, 1943: 116). 이리하여 대구신사 숭경자 상임총대 도쿠라(戸倉十六) 외 14명은 대구신사유지경영규약을 맺고 대구부윤의 인가를 받아 대구신사는 대구부내의 숭경자가 유지경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구신사는 재주일본인유지에서 거류민단, 대구부, 숭경자 조직 즉 우지코 조직으로 경영주체를 변화시켜 신사와 행정구역, 지역민을 하나로 연결하여 국가신도체제로 이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신사사원규칙이 발포된 약 1달 후, 1915년 9월 20일 대구부는 우지코총대를 소집하여 대구신사규칙제정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대구신사봉사규약으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구신사의 유지경영은 부윤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구부내에 거주하는 숭경자가 한다

제2조 대구신사에 신직1명을 두고 제사집행 외 경내의 경비 및 신사전속 보물 그 외 제사용기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3조 신직은 상당한 자격을 지닌 자로 숭경자총대에서 추천하고 부윤의 허가를 받는 자로 한다.

제4조 숭경자는 부내 각 구마다 1명이상의 총대를 선거하고 신사에 관한 요무(要務)를 평의(評議)한다. 단 구장은 선거와 상관없이 당연 총대가 된다.

제5조 숭경자총대자 중 신직의 당무에 참여하는 한편 서무 약간 명을 선거하고 그 씨명을 부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숭경자총대는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대구신사의 제전은 매년 4월 및 10월 2회로 하고 그 외 임시 거행할 수 있다

제8조 대구신사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매년 약간의 금곡을 적립하여 기본재산을 조적한다.

제9조 임시 수입인 금곡은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한편 기부자에게 그 목적을 알리는 것은 이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10조 대구신사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보조금기부금 그 외 수입금을 가지고 이것에 미달이거나 부족할 때는 숭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대구신사의 수지예산은 매회계년도개시전 숭경자총대에서 이것을 평정하고 일반숭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담당 간사는 연도후 3개월 이내로 결산보고를 만들어 숭경자총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신사에 속한 현금은 확실한 은행에 예금한다.

제14조 회계연도는 그 해 4월 1일에 시작하고 다음해 3월 31일에 마치는 것으로 한다.

(『조선시보』, 대구신사봉사규약, 1915년 9월 23일).

대구신사봉사규약의 특징은 대구신사의 유지경영에 중점을 두고 숭경자, 숭경자총대 등 우지코조직의 결성과 대구신사의 제전, 수입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지코총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우지코로부터 신사 운영에 관한 갹출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김대호, 2008)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내의 조선인을 포섭하고 흡수하여 신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인적기반을 만들려는 신사의 유지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21년 3월 대구신사는 숭경자 총대 신사창립 당시의 진력자(尽力者) 및 신사경영 진력자, 부내 공공단체 수뇌부는 대구신사조영봉사회를 조직하여 마쓰이 부윤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조영봉사회는 신사조영비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1922년 7월 기부금 2만 8500여 원에 달하여 신사조영 공사가 완료되어 신역정비의 기초는 확립되었다(대구부, 1943: 115-118).

1910년-1920년대 대구신사의 임시제전은 창립인가를 받은 후 봉고제집행(『부산일보』 1916년 6월 18일), 국위선양기원제(『경성일보』 1924년 7월 2일), 명명식봉축제전(『조선신문』 1925년 12월

15일), 성상폐하 뇌어평유 기원제(『조선시보』 1926년 12월 4일), 기우제(『조선시보』 1929년 6월 15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0-20년대는 황실안녕과 기원기복과 같은 종교성이 짙은 임시제가가 많았다. 1930년대는 신전결혼식 개최(『부산일보』 1930년 9월 21일), 시정기념일(『경성일보』 1930년 10월 1일), 국위진전기원제(1931년 12월 15일), 초혼제(『조선신문』 1932년 9월 14일), 도리이 헌납봉고제(『조선신문』 1932년 10월 8일), 전몰사자 위령제(『조선신문』 1933년 4월 27일), 황태자탄생기념제(『부산일보』 1934년 12월 21일), 어전식제(『부산일보』 1935년 6월 20일) 등 1930년대 이전과는 달리 전쟁과 관련한 의례가 많으며, 초혼제에는 일본인 유족과 조선인 유족이 함께 참열하였다. 야스쿠니신사 임대제 요배식과 위령제를 겸하여 거행된 행사에서는 아동 50여 명이 졸도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원인은 결식과 뇌빈혈로 아침을 먹지 않고 2시간이나 서있었기 때문에 결식과 뇌빈혈을 일으킨 것이었다(『조선신문』 1933년 5월 1일).

우지코총대의 활동도 1930년대 들어서 조선인 포섭과 확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1933년 10월에는 대구신사에서는 처음으로 사상과 내선융화의 측면에서 조선인총대 상치(常置)를 결정하였다(『부산일보』 1933년 10월 19일). 우지코의 자격으로 조선인도 편입되었지만 우지코총대로서의 편입은 대구신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25] 선출된 우지코총대는 대구신사의 승격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인다(『조선신문』 1935년 11월 28일, 1936년 1월 25일). 그러나 조선인에게 기부금을 걷고 우지가미신앙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인의 민족성, 종교성, 지역성을 배제하고 강제로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는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김대호, 2008: 129-130).

25) 경성신사에서는 1915년 조선인 신사총대를 임명하고 형식상 편입하였다.

3) 신사참배 강요의 규범화: 1937년 이후의 대구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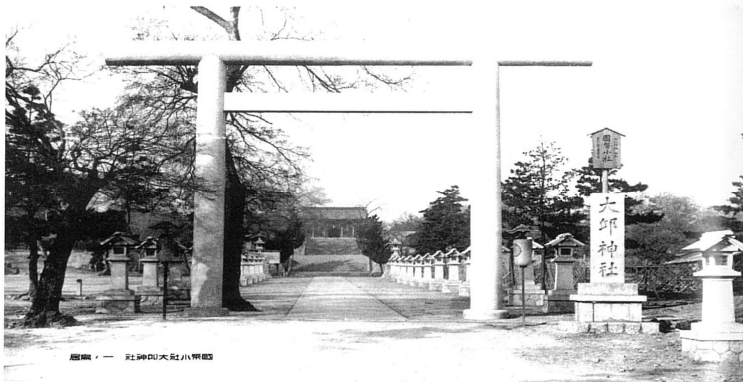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면, 1936년 8월 '일도일열격사의 설치 방침'을 통해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신사가 도공진사, 포항신사가 읍공신사로 신찬폐백료라는 이름으로 부나 도와 같은 지방 관청에서 신사에 공금을 지원하는 도공진사로 지정되었으며, 1937년 5월 15일에는 대구신사가 국폐소사로 지정되어 위계화된 제사시스템이 구축되었다(岩下, 1941: 778). 개정된 신사제도를 통해 직권이 집중된 미나미총독[26]은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내지(內地)'의 피라미드형 신사체계에 조선의 신사를 편입하여 지배원리로서의 천황제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적으로 침투시킨다. 신사제도의 개정으로 '신기(神祇)를 중심으로 하는 내선일체의 구현'[27]을 추진하려는 목적을 지닌 총독부는 지배원리로서의 천황제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확정시킨 것이다(山口, 1998: 131-133).

대구신사가 국폐소사로 승격되기 전부터 우지코총대회에서는 국폐사승격을 목적으로 사전을 조영하려고 '신사승격봉찬회'를 조직하고 3월 29일 협의회를 열고 기부모집 준비에 착수하였다(『부산일보』 1936년 3월 29일). 사전조영기금으로 10만 원을 모았으나, 내무성 신사국 기사(技師) 스나미(角南)가 대구신사조영계획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10만원으로는 무리라고 판명되어, 조영설계는 부(府)에 일임하기로 하였다(『부산일보』 1936년 7월 8일). 부족한 기부금문제는 1936년 9월 1일 신사상임총대회를 개최하여 상임총대 28명에서 5명의 총대증원이 결정되어 기부금문제는 해결되었다

---

26) 1936년 8월 5알 제7대 조선총독에 임명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조선군사령관(1929년), 육군대신(1931년),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특명전권대사(1934년)를 역임한 인물임.

27) 今井田清德「朝鮮神社制度の改正に就いて」『朝鮮総督府官報』 1936年8月1日号外(山口, 1998: 132 재인용)



〈그림 2〉 국폐소사 대구신사
자료: http://www.himoji.jp/database/db04/permalink.php?id=87, 神奈川大学非文字資料研究センター(검색일 2021년 3월 4일).

(『부산일보』 1936년 9월 3일). 대구신사에서는 국폐사 승격을 목표로 1936년 9월 8일 상임총대회를 열고 제신증사, 신사령발포에 의한 내규개정[28], 우지코총대개선 건에 대해서 협의 한 결과 대구신사의 내규를 개정하였다. 1936년 12월 6일부로 제신증가에 대한 허가지령이 도달하였으며, 이것으로 대구신사는 아마테라스, 구니타마(国魂大神), 스사노오(須佐之命)의 3좌가 되었다. 아마테라스를 주신(主神)으로 하고 있었지만, 국폐사의 사격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사(增祀)를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시조(始祖) 및 건국유공자들을 모두 합하여 국혼대신이라는 명칭으로 합사하였으며, 스사노오의 경우는 대구신사 외에도 대장(익산), 여수, 경주, 해주, 강원 신사에 모셔졌으며 모두 다른 신들과 합사된 부신(副神)으로 모셔졌다(노성환, 2011: 59).

1937년 3월에는 미나미총독, 5월에는 어열격봉고제전(御列格奉告祭典) 칙사로 오노(大野) 정무총감이 참향(參向)하기로 하였다

28) 춘추 2회의 예제를 추계1회로 규정하였다(『부산일보』, 1936년 9월 10일).

(『매일신보』 1937년 5월 29일).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총독부는 내선일체라는 슬로건 아래 황민화정책을 전개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륙병참기지화를 위한 조선민중의 전쟁동원과 이에 필요한 민족성말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천황제이데올로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취하였다(山口, 1998: 133). 1937년 10월 13일에는 대구신사에서 전첩봉고제가, 17일 신상제에서는 전첩축하회가 거행되었다(『조선시보』 1937년 10월 16일). 1937년 12월 13일 남경함락의 보가 전해지자 대구신사에서는 축하 마쓰리를 하고 육군기의 헌납식도 행해졌다(『조선시보』 1937년 12월 15일).

국폐소사 대구신사의 조영은 이미 착수되어 있으므로 본 사전 완성까지 가전(仮殿)으로의 천좌제(遷座祭)[29]를 1938년 4월 14일 오후 고다키(上瀧基) 경북도지사[30], 후루이치부윤 이하 우지코총대가 참집하여 제전을 거행하였으며(『부산일보』 4월 15일), 1939년 11월 20일 가전에 옮겨두었던 신령을 본전에 다시 모시는 천좌제가 집행되었다. 대구신사의 천좌제에서 경북도연합청년단은 고령 및 경주에서 신불을 가지고 와서 신전에 봉납하였다. 고령은 '임나대가야의 고지(故地)이며, 경주는 스사노오가 내려온 성지(聖地)'라는 이유에서 선택되었다고 한다(『조선시보』 1939년 11월 20일). 그러나 일본과 경주, 고령의 역사적 관련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본 중심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29) 천좌제란 신전의 개축, 수리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신체(神体)를 옮기는 것 또는 준공된 신전(神殿)에서 가전(仮殿)으로 신체를 이좌(移座)하는 제의를 말한다. 반면, 이세신궁과 같이 6년, 12년, 20년, 30년, 50년 등 정해진 주기마다 행하는 천좌제를 식년천궁제라고 한다.

30) 고타키는 1918년 도쿄제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 시보가 되어 조선에 왔으며, 임야조사회 사무관 겸 조선총독부 사무관을 역임하고 조선총독부 본부 광무과장을 거쳐 1936년 경상북도 도지사가 되었다(高橋三七(1939), 『事業と郷人』第一輯, 実業タイムス社 大陸研究社, p.360, 권희주. 2018: 117 재인용). 한편, 고타키는 조선사편수회 간사로 1933년 12월 8일부터 1936년 6월 3일까지 재임하였다.

같은 민족이라는 일선동조론을 설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신도를 강제적으로 숭경하게 하는 논리가 되기도 하였다(이소마에, 2013: 240). 천좌제는 내선일체의 사상을 재현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 성의(盛儀)가 전 조선에 중계방송 되었다(『매일신보』 1939년 11월 13일).

대구신사의 이러한 변화는 전쟁체제로 경도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사람들에게 신사정책의 확대 및 강요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고타키는 "조선은 신국이며 국민의 경신숭조의 념(念)은 국체에 근거한 국민적 신앙이다. 내선일체 민중의 경신사상의 향상으로 신궁대마봉제호수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집단행사가 신사 앞에서 거행되고 있는 것처럼 신사는 민중생활의 중추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조선시보』 1940년 1월 3일).[31]

1937년 중일전쟁 이래 대구신사는 1938년, 1941년 2차례에 걸쳐서 경내 확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달성공원뿐만 아니라 대구 외곽에 1936년 충령탑(忠靈塔), 1939년 소충관(昭忠館)과 무언전사탑(無言戰士塔)이 차례로 만들어지면서 제국도시 대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충령탑은 현 캠프 조지 서북쪽,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 전쟁으로 죽은 대구, 경북지역 일본군의 유골을 안치한 높이 30미터에 달하는 탑이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소충관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이 만주사변(1931년)을 기리기 위해 1939년에 세운 기념관으로 소충관 내부에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말, 개, 비둘기 등 군용동물들의 무언전사탑(無言戰士塔)이 같이 세워졌다(윤정혜, 2007). 또한 1940년대 초반에는 국체명징관(國體明徵館)[32] 이 지금의 달성공원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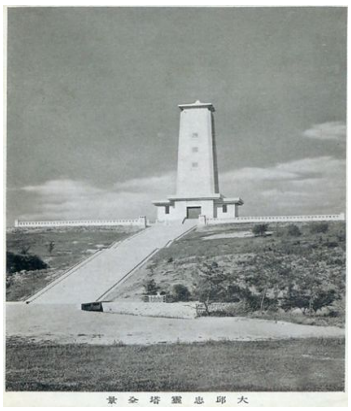
31) 기사제목은 거국일체가 되어 황국의 사명달성(挙国一体となり皇国の使命達成(二))으로 게재되었다.

32) 국체명징(國體明徵) 즉, 황도정신(皇道情神)의 보급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들의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건물이다.

니스코트 자리에 건립되었다(예명해 외, 2007: 47-48). 국체명징관은 경상북도 교육회의 발기기념사업으로 국체와 국민정신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그림을 진열하여 청소년들에게 조국정신을 깨닫게 하고 국민정신함양을 목적으로 조선에 최초로 설립되었다(『매일신보』1940년 8월 1일). 이와 같이 대구는 달성뿐만 아니라 대구 중심지가 황국신민화정책과 전쟁동원정책에 참여를 강요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변모하였다(예명혜 외, 2007: 48).



〈그림 3〉 대구소충관
(1939년 건립)



〈그림 4〉 대구충령탑전경
(1936년 건립)

4. 1930년대 이후 대구신사의 제의 및 역할

대구독본에 의하면 대구신사에서의 정해진 제사로는 大祭로 춘추의 例祭(예제, 4월 16일, 10월 16일) 외에 祈年祭(기년제, 2월 17일), 新嘗祭(신상제, 11월 23일), 中祭로 歲旦祭(1월 1일) 元始祭(1월 3일), 紀元節祭(2월 11일), 天長節祭(4월 29일), 明治節祭(11

월 3일), 節分祭(2월 4일), 施政記念日祭(10월 1일), 小祭는 매월 1일, 15일, 28일에 열렸으며, 임시로 열리는 예제도 많아 참배객이 많았다(대구부교육회, 1936: 195).

1930년대는 1931년의 만주침략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대구신사에서 행해지는 의례도 전쟁과 관련된 집단의례가 많았다. 1937년 5월 국폐소사가 된 대구신사에서는 그 해 7월부터 여름방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무운장구 기원 하계 일참(日參)[33]회'(이하, 일참회)를 시작했다(히우라, 2016: 190-191). 대구신사에서는 매일 도장을 받기 위해 '일참증'이 배포되었는데 이 '일참증'은 조선신궁에서 하계 조조 참배 등으로 실시한 행사가 대구신사에서도 그대로 확장, 적용되어 각 학교, 각 학년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공표되었다. 일참회를 실시한 결과 1938년 7월에는 약 5만 명이나 되는 소학교 아동이 동원되었으며, 이외에도 '절분제'와 '입춘 부적 배포'가 진행되어 1938년 7월에는 개인참배자가 급증하여 단체참배자수를 능가하였다고 한다. '일참증'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개인 참배자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전쟁의 영향이 있었으며, 상벌, 교장선생님의 훈화 등의 장치로 인한 자발적인 형식을 유도하는 개인참배와 함께 단체참배를 강요하는 회로를 만들어갔다(히우라, 2016: 149-202).

1921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란 스기야마[34]는 대구신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대구에서는 대구신사가 제일 컸고,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행사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마쓰리도 성대하게 행해지는 그런 장소였지요. 그리

33) 신사에 매일 참배하는 것.

34) 스기야마는 1921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서 대구로 이사해 1928년 대구공립본정심상소학교, 1934년 대구공립고등여학교, 1939년 경성여자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1941년 달성초등학교, 1945년 대구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로 이동 1945년 8월까지 약 4년 반에 걸쳐 교원으로서 교단에 섰다.

> 고 서본원사, 동본원사라 해서 절도 있었지만, 그것은 종파가 있어서 한정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지만, 신사는 모든 일본인의 공통된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기모노를 새로 맞추면, 기모노를 입고 먼저 신사참배를 했지요. (중략) 옛날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화관에 갈 때에 기모노를 입거나 다도라든지 재봉을 배우러 갈 때에 기모노를 입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는 놀러 갈 곳도 없고, 결국 신사에 가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라든지, 아무튼 모든 것이 신사였지요. 그런 곳이 대구신사였어요(스기야마, 2011: 57-61).

스기야마의 구술은 거류민신사의 종교적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와 같이 일본의 세시풍속과 일상통과의례를 치르기 위한 장소로서 대구신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스기야마의 구술을 다시 인용해보면, 1941년부터 근무한 대구 달성국민학교에서 경험한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생활화되어 있지만, 조선은 달랐으니까, 신사참배, 무운장구 기원은 중요한 행사였어요. (중략) 달성국민학교에서 신사까지 전교생이 줄을 서서 갑니다. 조선인을 데리고 간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는 모두 일본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당시는 지금처럼 종교가 따로 있는 사람은 드물었고, 또 신사참배는 국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중략) 신사에 가면 제주가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최경례만 하고 돌아올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신비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지요. 그렇지만 명예롭다는 감각이 아이들에게는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스기야마, 2011: 176-177).

스기야마의 말처럼 대구신사는 거류민에게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행사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마쓰리도 성대하게 행해지는 그런 장소'였으며, '모든 일본인의 공통된 신앙'이었다. 그러나 식민지교육의 목적은 천황제에 충성하는 아동을 교육하는 것이며, 초등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기야마가 1941년부

터 근무한 달성국민학교에서도 식민지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아동을 교육현장에서 교육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신사참배가 강요된 시기이다. 1940년에는 경성신사에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아침참배'를 하였고, 사보(社報)를 통해 각 학교 참배 아동의 인원수를 발표하였다(히우라, 2016: 193). 아동에 대한 신사참배 요구가 전국각지로 확장되어 단체참배자수도 증가하여 전체참배자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스기야마의 경우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본의 지배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했으며, 대구신사로의 신사참배는 일본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35] 스기야마는 재조일본인 중에서도 비교적 조선인과의 접촉이 많은 편으로 이러한 스기야마까지도 당시 조선인을 같은 일본인으로 만드는 일이 교원인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혼마, 2011: 15).[36]

한편, 재조일본인이 아닌 식민지기 조선인 여학생의 일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타 오사무에 의해서 2007년 발견된『여학생일기』(1937)는 대구여고보(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여학생 K양이 3학년(1937년 2월 18일)부터 4학년(동년 12월 12일)에 걸쳐 쓴 약 10개월간의 학교생활 기록이다. K양이 대구신사에 참배한 횟수를 보면, 중일전쟁 이전에는 3번(개학식, 대구신사제, 대구신사 국폐소사 모내기제)이였는데 중일전쟁 본격화 이후에는 7번(개학식, 제1회 애국일, 대구신사제, 신상제, 신사참배, 국체명징일,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 환발 기념일, 신상제)으로 늘어났다(오타, 2013: 262). K양은 학교에서 단체로 학교의 신전 및 대구신사를 참배하였으며, 군대와 관련된 의식에도 빠짐없이 참가한다. 학

35) 스기야마의 오빠도 1942년 육군병사로 징집되어 1944년 뉴기니에서 전사했다.

36) 스기야마는 당시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패전 후 차별이었다고 자각하여 '정신적 전범'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고 한다(혼마, 2011: 15).

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참배는 신사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1937년 이후에 학교교육 안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1937년 4월 27일 화요일 야스쿠니신사제(靖国神社祭)에서 교장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화했다.

> 오늘은 야스쿠니신사제로 올해 새롭게 방금까지는 같은 인간이었습니다만, 신이 되어 기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 공로가 있던 사람으로 그 중에는 대구중학의 교장선생님의 아들도 오늘부터 신이 되어 기원되기 때문에 가족 모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은 정말로 타국의 종교의 신과는 달리 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기원하고 참배하는 것입니다(4월 27일).

교장의 훈화 중 국가에 공이 있던 사람이 '신이 되어 기원된'다는 부분은 신사가 거류민의 사(私)의 영역으로서의 신앙의 장소가 아닌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국가의례가 진행되는 곳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1939년 대구사범학교 심상과에 입학하여 1941-1943년 사이에 쓰여진 조선인 L군의 일기에 의하면, 신사참배는 제례 또는 기원(祈願)의 형식으로 일상 깊이 학생들에게 파고 들었다(이경숙, 2009). 매달 1일 애국일, 봄가을의 대구신사제, 개학일, 대구신사봉찬일, 11월 30일 일본만주중국연맹 일주년 기념식, 하와이공격을 앞둔 12월 2일 '성전관철기원선고제(聖戦貫徹祈願宣告祭) 국민대회' 등의 기념일에 대구신사를 집단참배하였으며, 신사참배만이 아니라 학교 안의 봉안전 청소를 담당하는 "성역(聖域) 당번"과 황국신민서사탑과 봉안전에 경례를 표해야 했다(이경숙, 2009: 57-59).

한편, 재조일본인들에게 신사는 내지에서와 동일하게 신앙의 대상이며,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로 작동되었다. 모리사키는 온 시내가 함께 즐기는 풍습으로 정월과 봄의 군기제, 가을의 대구신사제를

기억하고 있다(모리사키, 박승주 외 2020: 117-118). 군기제는 천황에게 하사받은 군기를 축하하기 위한 조선인도 참여가능한 마쓰리로, 대구신사제는 미코시의 치고행렬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모리사키, 박승주 외 2020: 119-120).[37] 또한 대구신사에 집단 참배하러 간 날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날로 기술되어 있다.

1930년대는 일상생활에서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황민화정책으로 인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신사참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전쟁관련의례와 신사참배 및 신사에서의 제례는 조선인들이 경험하는 일상과는 달리 일본인들의 삶 속에서 필수불가결하며, 일본 본토에서와 같이 일상적인 제의공간의 연장선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대구신사는 거류민단에 의해 1905년 달성산에 황조요배소로 창건되었으며, 1913년에 대구신사로 개칭하여 1937년에 국폐소사로 승격된 신사이다. 거류민봉제신사의 창립목적에 대해서는 '식민지지배의 도구'라는 입장과 '서민종교성'의 유지를 위한 필요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구신사의 사례가 어떠한 논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

37) 모리사키 연표(박승주 외, 2020: 287)에 의하면 모리사키는 1934년 4월에 봉산정소학교에 입학하여 모리사키의 아버지가 경주중학교 초대 교장직으로 경주읍으로 이사 가는 1938년 4월 전까지 봉산정소학교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 1학년은 아니었으므로 1935-1937년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인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거류민신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거류민단은 신사입지의 선정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관찰사 이용익을 배격하거나 시위를 벌이는 단체행동을 취함으로써 위협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신사입지는 한일공동의 공원지로 하는 명목으로 한국정부로부터 무상사용을 허가받았으며, 이로써 거류민단은 공원과 신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권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기야마의 말처럼 대구신사는 거류민에게 일본의 세시풍속과 통과의례를 치르기 위한 장소이자 마쓰리도 성대하게 행해지는 장소였으며, 신사는 '모든 일본인의 공통된 신앙'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구의 상징이며, 신앙의 공간인 달성산에 친일파를 앞세워 거류민단이 주축이 되어 정신적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 행위는 처음부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침략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구신사의 특징은 서민종교성 유지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무라카미의 주장과 같이 침략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거류민봉제신사의 창건과정은 '거류민단과 일본관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대구부, 2020: 282)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15년-1936년의 국가신도 이식기에는 1915년 신사사원 규칙 포고 및 1936년 신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신사정책의 영향으로 우지코조직을 만들어 조선인을 포섭하고 신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지코조직의 결성은 한국인의 민족성, 종교성, 지역성을 배제하고 일본의 우지가미신앙체계를 한국인에게 적용시켜 새로운 신사제도를 이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천황제이데올로기는 신사참배강요로 구체화되어 지역민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규범화된다. 집단 및 개인참배가 신사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쟁관련의례

는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신사는 한국인에게도 '민중생활의 중추'가 되었다. 일본인에게 신사참배는 고유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는 개인의 삶까지 침투하여 침략성을 내포하는 행위로 신도가 종교로 강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비온티노, 2016: 1-5).

식민지기 일본인은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구를 공간적으로 변화시키고 종교문화를 이식하려고 하였지만 정신적 문화적 가치관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다. 읍성의 훼철, 경부선철도 건설 등은 도시공간을 변화시켰지만 대구신사 및 神祠, 충령탑, 소충관, 무언전사탑, 국체명징관 등과 같은 전쟁유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향후에는 이러한 전쟁유적이 군대와 함께 어떠한 동선으로 대구를 군사도시로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성일보』
『대구실업신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시보』
『조선신문』
『황성신문』

2. 논문

권희주, 「식민지기 경상북도 지역의 종이연극(紙芝居) 연구-농촌진흥운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제46집, 2018, pp. 115-132.

김경남,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식민도시의 군사적 특성」,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2017. 11.24.
김대호,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2009, pp.72-184.
김백영,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사학회, 『도시연구』, 제8집, 2012, pp.7-48.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호, 2013, pp.5-48.
김일수,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0-59, 2015, pp.257-287.
남상구, 「일본의 한국 침략과 야스쿠니신사」, 동북아시아역사재단, 『식민 청산과 야스쿠니』, 2019, pp.50-73.
노성환, 「한국의 단군과 일본의 스사노오: 일선동조론에 이용된 한일신화」,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1-26, 2011, pp.43-63.
문혜진, 「한일병합(1910년) 이전 남산대신궁의 종교적 성격에 관한 연구-거류민신사의 서민종교성을 중심으로」, 서울역사편찬원, 『鄕土서울』, 83호, 2013, pp.237-275.
문혜진, 「일제 식민지기 종교와 식민 정책: 경성신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015,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문혜진, 「식민지 조선의 국폐소사(國幣小社)에 관한 일고찰-국폐소사의 운영 및 제의 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0-15, 2016, pp.153-159.
박규태, 「일본의 민중신앙과 아마테라스의 변용: 구로즈미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일본사상』, 제4집, 2002a, pp.35-57.
박규태, 「국가신도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 『宗教研究』, 제29집, 2002b, pp.229-258.
비온티노 유리안, 「日帝下 서울 南山 地域의 日本 神道·佛教 施設 運營과 儀禮 硏究」,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역사 전공) 박사학위 논문.
손정목, 「日帝下 扶餘神宮 造營과 소위 扶餘神都建設」, 일지사, 『韓國學報』, 13-4, 1987, pp.123-156.
예명해·장연진·옥희정, 「대구 달성공간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근대 이후 내부 공간의 전체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거주한경

학회,『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5-2, 2007, pp.35-51.
오타오사무,「중일전쟁 시기 대구 조선인 여학생의 학교생활」동국대학교,『식민지 조선의 일상을 묻다』, 2013.
이경숙,「전시체제기 대구사범학교 학생 일기 분석: 기록과 비기록의 관점에서」, 한국교육사학회,『한국교육사학』, 41-1, 2009, pp.49-79.
이동훈,「재조일본인 건립 신사(神社)에 관한 기초적 연구-'한국병합' 전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사연구』, 제62집, 2018, pp.401-445.
최진성,「일제감정기 조선신사의 장소와 권력」, 한국지역지리학회,『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2006, pp.44-58.
홍순권,「한말 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육군군사연구소,『군사연구』, 131호, 2011, pp.7-54.
菅浩二,「日本の領土擴大と「天照大神」崇敬の変遷-朝鮮の事例から-」,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일본학』, 제31집, 2010, pp.131-159.
山口公一,「戰時期(1937~45) 조선총독부의 神社政策」,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사연구』제8집, 1998, pp.128-157.
津田良樹、中島三千男ほか「旧朝鮮の神社跡地調査とその檢討－全羅南道、和順郡を中心に－」『年報 人類文化研究のための非文字資料の体系化』第3号、神奈川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研究推進會議、2006年3月, pp.285-382.

3. 단행본

가와이 아사오, 손필헌 옮김,『대구이야기』, 대구중구문화원, 1998.(河合朝雄,『大邱物語』, 朝鮮民報社, 1931.)
거리문화시민연대,『대구 新 택리지』, 북랜드, 2007.
대구교육박물관,『여학생일기』, 대구교육박물관, 2018.
대구문화예술회관,『(옛 사진으로 본)근대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향토역사관, 2008.
대구부, 최범순 옮김『대구민단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2020.(大邱府,『大邱民団史』, 大邱府, 1915.)
모리사키 가즈에, 박승주・마쓰이 리에 옮김,『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글항아리, 2020.
미와 조테츠, 최범순 옮김,『조선 대구일반』, 영남대학교출판부, 2016.(三輪如鐵,『大邱一般』, 杉本梁江堂, 1911.)

히우라 사토코, 이언숙 옮김,『신사 학교 식민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樋浦鄕子,『神社、學校、植民地–逆機能する朝鮮支配–』,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허동현・권태억・김승태 외,『근대 한・일간의 상호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혼마 치카게, 신호 옮김,『스기야마 토미: 1921년 7월 25일생』,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눈빛, 2011.
青井哲人,『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吉川弘文舘, 2005.
青野正明,『帝國神道の形成–植民地朝鮮と國家神道の論理–』, 岩波書店, 2015.
金泰賢,『朝鮮における在留日本人社會と日本人經營新聞』 神戸大學大學院學位論文, 2011.
菅浩二,『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 弘文堂, 2004.
辻子實,『侵略神社』, 新幹社, 2007.
大邱府,『大邱府史』, 大邱府, 1943.
大邱府教育會,『大邱讀本』, 1937.
村上重良,『國家神道』, 1970.
山口公一,『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會』, 一橋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4. 인터넷자료

윤정혜,「옛날 옛적에 대구에는」,『대구문화』261, 대구향토역사관, 2007.

(투고일: 2021. 5. 23 심사완료일: 2021. 6. 20 게재확정일: 2021. 6. 22)

지영임
소 속: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전자우편: chejuchi@hanmail.net.

[Abstract]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Daegu Shrine in th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the Transplantation of Religious Culture through Migration

Chi, Young-im

Daegu Shrine was established in 1905 by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and renamed Daegu Shrine in 1913 and promoted to the Kokuhei-Shosha in 1937.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 shrine founded by Japanese residents in Joseon, there is a dichotomous view that it is a tool of colonial control and a need to maintain "common religion." However, since these binary alternative discussions alone are not explained, we will look at what points the case of Daegu Shrine provides. First, if you look a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egu Shrine from 1905 to 1914, and 1915 to 1936, when the Daegu Shrine was completed, and 1937 to 1945, when forced to visit the shrine was established, Daegu Shrine was supported by colonial power and Japanese military forces. This study could provide data on the cases of local shrines that can analyze the religious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rough the restoration of various religious cultur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Key Words: Daegu Shinto Shrine, a shrine founded by Japanese residents in Joseon, Kokuhei-Shosha, Japanese Resident-General, Dalseong Park